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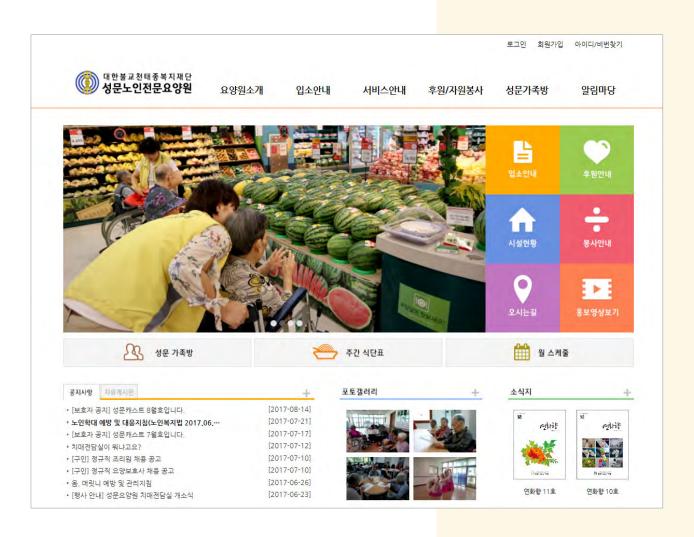
- 04_ 성문소식通
- 06_ 보호자 간담회. 2017. 상반기 보호자 간담회
- 07_ Zoom In 1. 원주시농업기술센터와 함께 하는 '실버세대텃밭'
- 08_ Zoom In 2. 원주 최초 '치매전담실' 개소
- 09 Zoom In 3,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 '원예치료'
- 10_ 나눔의 현장에서 1. 백점 만점에 백점 '한마음봉사단'
- 11_ 나눔의 현장에서 2. 성문서포터즈 밴드
- 12_ People In. 한영숙 어르신이 들려주시는 '내 삶의 여름 추억'
- 14_ 요양원 사람들. 산새 같이 경쾌한 사람, 이은지 물리치료사
- 16_ 건강 칼럼. 치매노인의 문제행동 대응
- 18_ 2017. 상반기 결산내역
- 20_ 성문가이드

「성문」의 이야기를 더욱 빠르고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성문에서는 따끈따끈한 소식을 홈페이지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www.sungmuncare.or.kr

스마트폰에서 '성문노인전문요양원'을 검색하시면 모바일 버전으로도 만나 보실 수 있답니다.



생문소식 通





설날행사 행福잔치

1월 26일, 성문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 윷놀이, 만두 빚기, 세배 및 새해선물 드리기 등 행복잔치를 열었습니다.이 자리에는 임윤지당얼선양회 선생님들도 함께 해주셨답니다.



마을공동체 '벗과 함께'

2017년도 특화프로그램인 '벗과 함께'! 각 생활동을 두 개의 마을로 나누고 반상회, 마을잔치, 마을대항놀이한 마당 등 어르신들의 단합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보름행사 '달맞이잔치'

2월 10일, 어르신들과 정월대보름을 맞아 '달맞이잔치'를 열어 부럼 깨물기, 더위팔기, 귀밝이술 마시기, 소원지에 소원 적기 등을 진행했습니다.



MBC 강원365 촬영

2월 13~14일, 원주MBC에서 촬영을 오셨는데요. 책자로 발간된 <성문 8090청춘라디오>를 보고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담고자 오신거랍니다. 3월 13일에 방송되었는데, 본원 홈페이지-공지사항에서도 영상을 보실 수 있답니다.



뿌리예술공연단 공연

3월 24일, 뿌리예술공연단의 공연이 있었습니다. 5개월만에 다시 만난 공연단을 우리 어르신들이 어찌나 반가워하시던지요. 노래·춤·타령 등 부족함 없는 공연에 박수가 절로 나왔답니다.



노인인권지킴이단 협약

3월 24일, 강원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과 강원 남부지역 요양시설들이 노인인 권지킴이단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 기관들은 매월 서로의 기관을 방문하며 인 권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답니다.



연세대학교 치위생학과 실습

작년에 이어 올봄에도 연세대 치위생학 과에서 지역사회 현장실습을 나왔습니다. 구강건강을 위한 인지프로그램/구강케어/ 틀니관리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주어 큰 도움이 되었답니다.



찾아가는 후원홍보활동

제등행렬이 있던 4월 22일, 원주 따뚜 공연장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성문'을 알리는 후원홍보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휴일을 맞아 나들이를 나왔던 가족들이 합장주/컵등 만들기 체험활동에 많이 참여하였답니다.





부처님 오신 날 후원홍보활동

5월 3일,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성문사 앞마당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합장주/ 컵등 만들기, 흙빚기, 물레 돌기기 등의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후원홍보활동을 펼쳤습니다.



상반기 보호자간담회

5월 8일, 어버이날 행사 직전 보호자님들과 한 자리에 모여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저희가 미처 생각 못했던 부분들에도 보호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심을 느낄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버이날 행사 '사랑해孝'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아 가족 여러분들을 초대-어버이날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성문사합창단, 여섯줄사랑봉사단도 함께 해주셨답니다.



장애인식개선교육

5월 16일, 원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류 윤정 사회복지사가 방문하여 종사자들 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한 번 더 예정 되어 있답니다.



국회 수석전문위원 방문

5월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석영환 수석전문위원님이 방문하여 요양시설 운영 관련 애로점/건의사항 등을 수렴 해 가셨습니다.



한지문화제

5월 25일, 한지문화제가 열리는 무실동 한지테마파크로 어르신들과 나들이를 나가 한지뜨기 체험/ 한지작품 관람 등 을 했습니다.



실버인지치료

어르신들의 인지기능 유지를 위해 올해 부터 새롭게 진행하고 있는 실버인지치 료! 매회기마다 즐거운 웃음소리, 노랫 소리, 박수소리가 끊이지 않는답니다.



요양보호사 간호교육

요양보호사들의 전문성 및 직무능력 향 상을 위해 월1회씩 간호교육을 실시하 였습니다.

낙상/당뇨/약물관리/연하장애/배설관리 등 매달 다른 주제로 진행되어 큰 도움이 되었답니다.



여섯줄사랑봉사단

2월 13일 첫 방문을 시작으로 매달 성 문을 방문해주시는 여섯줄사랑봉사단!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여섯 줄 기타 연주 로 어르신들께 즐겁고 유쾌한 시간을 선 사해주신답니다.





2017. 상반기 보호자 간담회



₩ 시설 전달사항

ADL에 따른 등급조정 신청 진행



• ADL(일상생활동작: activities of daily living)은 장기요양등급을 결정하 는 주요 지표로, 입소 중 기능이 크게 약화되거나 호전될 경우 장기요양등급 변경 신청을 통해 어르신 상태에 맞는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MMSE 검사 결과 진단 및 전문의 진료



• 치매는 완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비교적 인지가 좋은 초기에 발견하여 상태 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본원에서는 사회복지사가 반기별 간이 인지기능검사를 실시하여 치매가 의심되는 분들은 전문의 진료를 권유하고 있음. 이에 보호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바람.

병원진료 및 약처방 관련 협조요청



- 3차 병원/ 1·2차 병원이라 해도 중요 진료 및 검사 시 보호자 동반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적극적인 협조 및 동행바람.
- 일부 보호자님들께서 약을 직접 처방받아다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간혹 기 한을 넘기실 때가 있음. 기한을 잘 맞춰 주시기 바람.

생활동 면회시간 준수 및 의복관리



• 생활동 면회는 주말 20분 이내로 시간 준수바라며, 식사시간은 피해 방문해 주시기 바람.

• 어르신 의복/간식 등을 생활동에 반입할 경우 요양보호사에게 인계해주시기 바람.



♥ 보호자 건의사항

와상 어르신들의 경우 면역력이 저하되어 계시므로 환기 시 찬바람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바람.



창문을 열어 직접 환기 시키는 것은 가급적 짧은 시간 안에 하고, 팬을 이용하여 환기를 시키도록 하고 있

침대시트 교환 시 에어매트리스 확인바람.



에어매트리스의 적정 공기상태를 수시 확인하고 있음.



성문요양원에서는 1년 내내 가족 여러분의 건의사항을 수령하고자 1층에 '건의항'을 마련했습니다. 가족 여러분! 부당 갖지 마시고, 의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성문'을 만듭니다.



원주시농업기술센터와함께하는 '신서세대전실'



"아이구~ 밭을 잘 만들어 놨네."

실버세대텃밭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어르신들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2017년 봄. 원주시농업기술센터의 지원을 받아 휠체어를 타고도 접근 가능한 '실버세대텃밭'을 조성했습니다. 기존 텃밭은 휠체어를 타신 분들은 사실 상 접근이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새로 조성된 텃밭에는 나무로 만든 플렌트박스가 있어 휠체어에 앉은 상태에서도 작물들을 심고 수확할 수 있답니다. 바닥도 데크와 야자매트를 깔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되었고요.

무엇보다 전문 농업기술사 선생님이 2주에 한 번씩 방문하셔서 회기별로 다양한 작물을 심고 수확하고 요리해보는 활동을 함께 해주신답니다. 쌈채소, 파, 감자, 가지, 더덕, 조롱박, 여주, 방울토마토, 가지, 고구마, 들깨, 천일홍, 노각오이, 수박 등등…… 손바닥만한 텃밭에 어찌나 다양한 작물을 심었는지 놀라우시죠? 무엇보다 많은 양은 아니지만 수확할 때마다 모든 어르신들이 함께 나누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자를 캐면 쪄서 간식으로 올리고요, 수박을 따면 화채를 만들고요, 천일홍은 청으로 만들어 차로 나눈답니다.





원주 최초 '치매전담실' 개소

성문노인전문요양원은 7월 14일 원주 최초로 치매전담실을 개소하였습니다. 치매전담실은 정부의 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의 핵심내용 중 하나로, 집안과 비슷한 환경으로 구성하여 소규모로 운영하는 것이 일반요양실과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또, 근무 인력들도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들로만 배치하여 어르신들 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1년 365일 제공하고 있답니다.

■ **입소자격**: 치매진단을 받은 장기요양등급 2~5등급 수급자(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한 수급자)

■ 프로그램: 사회적응훈련, 가족참여활동, 감각활동, 신체활동, 음악활동, 인지자극(창조적활동), 인지훈련, 회상활동, 힘뇌체조. 특화프로그램 등

■ **입소비용** (30일 기준/단위: 원)

등급	1일당 입소비	본인부담금		비급여항목	최종부담요양비	
		A. 일반(20%)	B. 경감(10%)	C. 식비	일반(A+C)	경감(B+C)
2등급	67,900	407,400	203,700	225 000	632,400	428,700
3~5등급	62,610	375,660	187,830	225,000	600,660	412,830

- *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무료입니다.
- *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기준에 의거하여 본인부담금을 청구하며, 수가 및 비급여항목 금액 변동 시 요양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① 인지자극(창조적활동) : 다육이 옮겨심기 ② 사회적응훈련 : 모의 시장(간식 구입) ③ 인지훈련 : 지남력 훈련(시간/계절 감각)



다양한 소재가 있는 '원에시길'

여러분들은 '워예'라는 단어를 들으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많은 사람들은 화초나 꽃을 떠올리는데요. 이 또한 틀린 말은 아니지만, 넓게 보면 채소, 과일까지 포함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한 달에 두 번 전문강사님이 오셔서 진행하시는 원예치료 프로그램에는 매우 다양한 소재가 있답니다. 그리고 그 소재는 곧 이야기가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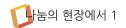
화분에 화초를 옮겨 심는 활동부터, 꽃꽂이, 방향제 만들기, 다양한 장식품 만들기는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식용꽃을 이용해 화전을 부쳐 먹거나, 매실 꼭지를 하나하나 뗀 후 매실청을 담거나, 과일을 이용해 화채나 카나페를 만드는 요리활동까지 진행한답니다.

원예치료가 끝나면 품 한 가득 화분, 꽃다발, 장식품…… 때로는 매실이 가득 든 통을 들고 돌아가시는 어르신들 얼굴에 "나 행복해요"라고 써있는 것 같아 참 보기 좋은데요. 그 속에는 또 자녀분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담겨 있더라고요.

이렇게 말입니다.

"매실 백일 있다 뚜껑 열라고 했지? 여기 오늘 날짜 써 줘. 우리 딸 오면 줄라고......" "화분 이거 집에 갈 때 갖고 갈거야. 우리 애가 꽃을 좋아해. 아주 나보다 더 잘 키워."





백점 만점에 백점 ' 하나 음살사 단'









3년 전 명륜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 인연을 맺게 된 '한마음봉 사단'! 한마음봉사단은 북에서 오신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 다.

명륜종합사회복지관 산하 강원남부하나센터에서는 북한이탈 주민들이 지역사회 주민들과 함께 함으로써 긍정적인 인식을 형성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한마음봉사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요.

저희 성문에서는 이미 목적 달성하신 것 같아요. 한마음봉사단 선생님들은 어르신들에게도 직원들에게도 인기 최고시거든요.

매월 셋째 주 일요일에 방문하시는 선생님들은 시원시원한 성격과 행동, 뒷마무리까지 깔끔한 봉사활동으로 청소면 청소, 식사조력이면 식사조력, 말벗이면 말벗......어느 하나 부족함이 없는 백점 만점에 백점인 분들이랍니다.

부탁드리기 전에 알아서 척척 해주시는 봉사내공 백단 멋쟁이 선생님들! 앞으로도 좋은 인연 이어가요~쭉~~~.



성문서포터스 '밴드'

성문서포터즈란 성문노인전문요양원 어르신들의 멋진 삶을 응원하는 후원자, 자원봉사자분들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서포터즈 분들의 활약상은 물론 성문 어르신들의 모습을 쉽게 만날 수 있는 밴드가 있어 소개해 드립니다.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에서 '밴드'를 검색-설치하신 후, '성문서포터즈'를 찾아보세요.

공개로 되어 있어 누구나 접근이 가능하고요, 만일 따끈따끈한 소식을 업데이트 즉시 바로 만나보길 원하신다면 밴드 회원가입도 강력 추천합니다. 많은 방문과 가입 부탁드려요~!





한영숙 어르신이 들려주시는 '나 살의 어금 주어'





여름 추억? 추억이랄 게 뭐 있나? 내 나이 지금 여든 하나에 고향은 경기도 양주야. 농사짓는 집 7남매 중 둘째로 태어났지. 위로 오 빠가 하나 있었으니 내가 맏딸인 거였지. 아들 셋, 딸 넷인 집이었는데, '맏딸은 살림밑천'이라는 말 이 있듯, 그 시절 나도 그랬어. 밑에 동생들 업어 키우고, 아버지, 어머니 논밭에 일 나가시면 참 내 가고 하는 게 내 일이었지.

사실 우리 세대가 참 그랬어. 그 때는 너 나 할 것 없이 다 힘들 때라 호강하는 사람이 없었어. 어 린 나이였지만 지금도 기억나. 왜정 때 놋그릇이 며 농사지은 거며 다 공출 내보냈지. 동네 언니들 도 부역 나갔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 그게 다 위 안부 끌려간 거였어. 요즘 TV에 나오잖아. 여자들 끌려갔던 거. 양주는 동네가 꽤 커서 그런 일이 심 심치 않았지.

해방 되고 조금 편하다 싶더니 곧 6.25가 터진거야. 그 때 내 나이 열 셋인지, 열 넷이었지. 전쟁통에 양주 우리 집이 다 타서 외가가 있는 서울 제기동으로 피난을 왔어. 당시 외삼촌이 장사를 해서 여유가 있었거든. 거기서 조금 머물다 이모가사는 장이동으로 다시 이사를 해서 정착을 했어. 그 난리통에도 우리 식구들 누구 하나 다치지 않았던 게 지금 생각해보면 참 감사하지.

그렇게 살다 23살에 버스운전을 하던 한 살 위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됐어. 차주 영감이 집에 왔다가 나를 보고는 중신을 선거야. 사실 나는 그 당시에 결혼 생각이 없어 얼굴만 보고 말았지. 그런데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그 양반하고 내가 참 친한거야. 꿈속에서 소금을 한 가마니를 지고 와서는 "장을 담그면 내가 갖다 먹겠소"라고 말하더라고. 말도 안 섞은 사람인데 참 이상해서 어머니한테 말했더니, 어머니가 손뼉 치시며 "천생연분 만났구나"라고 하셨지. 차주 말이 남편 꿈에는 내가나와 공을 자꾸 집어 던지더라는거야. 그래서 어른들이 궁합을 봤는데 정말 천생연분이라는 거야.게다가 내가 그 양반한테 시집을 안 가면 평생 시집을 못 간다고까지 말을 하셨지.

그 후 일사천리로 결혼준비를 했어. 어느 날 아버지랑 차주 영감이 상을 갖다 놓고 앉으셨어. 사주단자, 금반지 닷 돈, 옷을 갖고 와가지고는 결혼날을 받는 자리였지. 그렇게 동짓달 초사흘에 결혼을 했어. 그런데 남편이 결혼하고 한 달 있다 군대를 가 원주에서 헌병으로 근무를 하게 된 거야. 나는 서울 친정에 계속 머물렀고, 남편이 쉬는 날이면 서울로 올라왔지. 그러다 첫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도 태어났고 하니 원주로 내려가 함께 지냈지. 헌병들은 돈이 조금씩 나왔거든.

그러다 4.19가 일어난거야. 군인이었던 남편은 꿈쩍도 할 수 없었지. 애를 데리고 다시 서울 친정으로 올라오는데,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 그렇게 남편 군복무 3년이 끝나고, 제대 후부터 1년은 장이동에서 살았어. 그러다 남편이 충청도 고향에 가서 농사를 짓자고 하더라고. 충청도에 땅이랑 감나무가 조금씩 있었거든. 그렇게 세 식구가 시골로 내려갔지.

빚을 얻어 담배농사를 시작했어. 그런데 이 담배 농사가 만만치 않았어. 당시 농약이 있기를 해, 비 료가 있기를 해. 담배벌레라는 게 있는데, 이 벌레 를 하루만 안 잡으면 이파리를 다 파먹어버려 농 사 망하는 거였지. 등에 큰 애를 업고 뱃속에 둘째 를 넣고 여름 내내 날마다 담배벌레를 잡았지. 남 편이랑 그 때 참 고생 많이 했어.

그래서인지 지금도 여름, 가을이면 그 담배벌레 잡던 게 그렇게 생각나. 그런데 그렇게 고생을 했어도 생각만큼 살림이 피지 못했어. 큰 애 아플 때 청심환 하나 못 사먹이고, 둘째 낳을 때 산파 부를 돈이 없어 남편이 뛰어가 당숙모를 모셔왔지. 또, 그 해 처음으로 시부모님 제사를 모셨는데, 떡 할 돈이 없어 밥만 지어 올려야 했지.

그렇게 고생하며 1년 농사를 짓고는 담뱃잎, 땅, 감나무 판 돈을 들고 이듬 해 정월에 다시 서울로 다시 올라왔지. 서울에 올라 와서는 리어카 장사부터 시작했어. 야채, 과일 같은 걸 팔았는데, 김 장철이면 남편이 봄에 계약해 둔 밭에서 배추를 뽑아오고, 난 한 접씩 끌고 나가팔았지. 그렇게 부부가 함께 고생하니 돈도 모이고 월계동에 집도 짓게 되었어.

근데 집 짓고 나서부터인지 일이 잘 안 풀렸어. 그래서 성남으로 이사를 내려왔지. 곡절이 있었어. 나 뿐 아니라 그 시절 사람들은 다 곡절이 많았지. 그 가운데서도 아들 둘, 딸 셋 5남매를 낳아 길렀어. 난 사실 먹고 살기 팍팍하니 셋만 낳으려고 했는데, 남편은 '형제가 적으면 외롭다'고, '제 먹을 복은 제가 다 타고 난다'며 생기면 생기는 대로 낳자고 하더라고. 할머니랑 같이 살다 할머니 돌아가시고 혈혈단신이었던 남편은 다복한 가정을 원했어. 지금 와서 생각하면 남편이 똑똑하고 성실하니까 5남매 중 어느 하나 엇나가지 않고 잘 자라준 것 같아.

남편 만나서 없어서 고생한 것 말고는 속 썩이는 것도 없었어. 그렇게 살아 애들 다 독립시키고, 둘이 같이 늙어가자고 원주 태장동에 집을 지어 내려왔는데 한 5년 살았나…… 남편이 먼저 저 세상 갔어. 내 마음이 엉망이 되었지. 한동안 많이 아팠어. 사실 남편이 항상 그리워. 그냥 계속 보고 싶어. 내가 잘해준 건 생각 안 나고, 내가 잘 못 해준 것만생각나 마음이 아파. 꿈에 한 번 나와 주지…….

지금도 창밖으로 농사짓는 사람들 모습이 보이면 남편이랑 같이 고생했던 게 생각나. 싸우지들 말 아! 나이 들어 보니 그래도 '이 사람밖에 없구나' 싶은 거…… 그게 부부야.

양원 사람들_물리치료사 편

산채 같이 경쾌한 차람,

히은지 물리치료사



요양원 어르신들의 시린 곳, 쑤신 곳을 보듬어 드리는 물리치료사!

이번 호에서는 따뜻한 웃음과 상큼한 목소리로 어르신들에게 인기만점인 성문 이은지 물리치료사의 이야기를 담아보았다.

"어르신! 제 이름이 뭐예요? 저번에도 알려드렸는데…… 은지요, 은지! 어르신 딸 이름 반대로 하면 되잖아요. 이제 생각나세요?"

"어르신 아드님이랑 전화하고 싶으시다고요? 사무실에 얘기해둘게요. 치료 다 끝나고 통화하세요."

"사과가 다 떨어졌다고요? 사회복지사 보고 있다 올라 가라고 할게요."

"아이고, 잘 하시네. 지난번보다 더 잘하셨어요. 고생하 셨어요. 어르신."

"힘든데 무리해서 억지로 많이 하실 필요 없어요. 어르 신 하실 수 있는 만큼만 하시면 돼요"

물리치료사의 목소리가 하루 종일 들려온다. 하루 종일 이어지는 이야기를 듣고 있자면 마치 산새의 재잘거림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힘들지도 않나?'라는 생각도든다. 어르신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불러드리고, 이야기에 귀 기울여드리고, 맞장구를 치는 그 모습이 애교 많은 손녀 같기도, 딸 같기도 하다. 그래서 물리치료사는 어르신들에게 인기가 참 많다.

물리치료사는 치료 대상 어르신들의 신체 상태를 사정하고, 어떤 치료를 시행할지 계획을 세우고, 계획에 따라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주업무이다. 신체 상태가 호전되거나 약화되면 그에 따라 적절히 치료방법을 수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 한 분 한 분의 신체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 어르신이나 △△△ 어르신처럼 신체기능이 긍정적으로 변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면 정말 보람을 느껴요. 맨날 휠체어에 앉아 계시던 분이 어느 날 부터 워커를 끌고 걸어 다니시는 걸 보면 '내가 하는 일이 헛되

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하지요. 물론 물리치료 때문만은 아니에요. 각 팀에서 제공된 서비스들의 결과 물인건데, 거기에 '나도 일조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주 기뻐요."

우리들도 아플 때 병원 가서 물리치료 받고 나면 시원해짐을 바로 느낀다. 어르신들도 그렇다. 즉각적으로 몸이 시원해짐을 느끼시니 매일 받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어르신도 종종 계신다. 그런데 한정된 인원과 시간으로 모든 어르신들이 원하는 만큼 해드릴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인 만큼, 적절히 분배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노인 대상 물리치료의 경우 한정된 면이 많다. 특히 만성질환을 2~3가지 이상 갖고 계시는 요양시설 거주 어르신들의 경우 신체기능이 많이 약하신 편이셔서 제공해드릴 수 있는 치료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물리치료 분야는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노인 인구가 급격히 늘고 있는 것에 비해 노인 대상 물리치료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은 거의 전무한 것 같아요. 그런 교육이 많 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르신들에게 조금 더 나은 치료를 해드릴 수 있겠지요? 하하 하."

오늘도 물리치료사는 어르신들의 이야기에 끊임없이 맞장구를 쳐드리고 있다. '경청'과 '공감'이 치료의 시작이고 반이라는 것을, 손보다 '눈과 입'이 먼저라는 걸 그녀의 모습을 보며 다시 한 번 느낀다.





치매노인의 문제행동 대응

하소라 복지사업팀장

본원에는 노인성 질환을 한 가지 이상 가진 어르신들이 생활하고 계신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치매이다. 치매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뇌의 기능이 손상되면서 발생하는데, 단순 기억력 문제 외에 일상생활 능력의 손실과 다양한 정신행동증상들의 문제가 주목을 받고 있다.

정신행동증상은 크게 정신증상과 행동증상으로 나뉜다.

정신증상으로는 망상, 의심, 환각, 추각, 우울증, 조증, 불안 등이 있고, 행동증상으로는 배회, 초조, 공격 행동, 반복행동 등이 있다.

치매진단 이후 90% 정도의 대상자에게 한 가지 이상의 정신행동증상이 나타난다. 대체로 초기에는 우울, 불안 등의 기분증상이 나타나고, 중고도 치매에서는 망상, 환청 등의 정신병적 증상이나 배회, 공격행동 등이 흔히 나타난다.

사실 치매어르신들은 주변 환경으로부터 오는 자극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케어자체에 대해 오인하여 거부하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보일 수 있고, 식사, 약물복용, 목욕 등에 대해서도 거부하기도 한다.

다음은 발생 빈도가 높은 정신행동증상과 그 대처방법을 간단하게 정리하여 보았다.

번 호	문제행동	설명	대처방법
1	망상	 설득에 의해 변경되지 않는 잘못된 믿음을 뜻하며, 잃어버린 기억을 보충하기 위해 나타나는 자기방어적인 현상 피해망상, 도둑망상, 질투망상이 대표적 	부정, 설득, 논쟁하지 않기주장과 감정 수용하기주의전환 돕기
2	환각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는 것으로 모든 감각을 통해 발생환시와 환청이 대표적	- 부정, 설득, 논쟁하지 않기 - 주장과 감정 수용하기 - 주의전환 돕기
3	야간 배회	- 불안하고 초조한 심리상태, 방향감각을 잃었을 때 발생 을 때 발생 - 과다배회로 낙상위험·실종·추락사고의 위험 증가	- 낮 시간 중 일광욕, 산책 등 신체활동량 증진 - 따뜻한 차와 대화로 심신 안정 유도 - 잠금장치 설치
4	실금 실변	- 화장실이 아닌 곳에 배설하거나 반복해서 화 장실 이용, 배설물을 손으로 만지는 행위	 화장실 표시(글 보다는 그림) 배뇨/배변 패턴 파악 후 미리 화장실 이 용도움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조심히 케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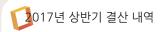
번 호	문제행동	설명	대처방법
5	수집 분실 의혹	남의 물건을 가져오거나, 누가 자신의 물건을 훔쳐갔다고 믿음물건 놓은 자리를 기억하지 못해서 발생	 물건에 이름표 붙이기 수집 시 물건을 몰래 제자리에 갖다 놓기 분실의혹 시 감정을 수용하고, 함께 찾아 보기 물건보관함 만들기
6	부적 절한 식사 행동	- 많은 양의 음식을 먹는 폭식 또는 과식, 음식이 아닌 것을 먹는 이식, 식욕의 감소나 한 가지 음 식만 먹는 행동	 과식 시 다 드신 그릇 보여드리고, 주의 전환 돕기 이식 시 간식을 적절히 제공 식욕감퇴 시 입안 또는 건강상태 확인 후 식이형태 변경 거부 시 잠시 쉬었다 재시도하거나 케어 자 변경
7	목욕 거부	- 도움의 손길을 오해하거나 수치심으로 인해 거부	충분한 사전 설명과 위생관리의 필요성 설명신체 및 심리상태 파악 후 라포형성된 케어자가 도움드리기

이러한 정신행동증상은 주변 환경과 케어자의 태도, 약물의 부작용, 신체적 질병, 수면장애, 식사상태, 심리적 문제 등 다양한 원인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원인파악이 가장 중요하며, 정도에 따라 원인을 제거하면 많이 호전되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은 케어자의 세심한 관심과 관찰이 없다면 정신행동증상이 호전되기 어렵다는 뜻이기도 하다.

치매케어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100가지의 기술보다 어르신들의 질환을 이해하고 다가가는 마음 하나에서 시작된다. 그렇기 때문에 약물적 치료보다는 비약물적 치료를 우선으로 하고,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 필요에 따라 약물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문가족 뿐만 아니라 치매가족을 둔 모든 사람들이 조금 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관심과 사랑으로 치매 어르신을 정성껏 모신다면 정신행동증상 또한 완화될 것이라 믿는다.





2017년 상반기 세입·세출 결산서 따위: 10

2017. 01. 01. ~ 06. 30.

세입			세출		
예산과목		정산액	예산과목		정산액
세입총계		1,254,059,835	세출총계		1,126,514,908
보조금	시군구보조금	23,189,760		인건비	821,085,428
	시도보조금	18,927,000	UBW	업무추진비	3,480,500
	소계	42,116,760	사무비	운영비	59,524,394
	비지정후원금	29,516,850		소계	884,090,322
후원금	지정후원금	_	구기 시니고 시네니	시설비	70,117,320
	소계	29,516,850	재산조성비	소계	70,117,320
HOIHOLT	법인전입금	5,000,000		운영비	158,325,386
법인전입금	소계	5,000,000	사업비	사업비	12,523,170
	이월금	65,284,759		소계	170,848,556
이월금	이월후원금	11,203,657	전출금	전출금	_
이걸금	이월보조금	609,260	신물금	소계	_
	소계	77,097,676	자기초	잡지출	849,460
	불용품매각대	_	잡지출	소계	849,460
THAOL	예금이자 수입	61,682		예비비	_
잡수입	기타잡수입	22,305,627	예비비	반화금	609,250
	소계	22,367,309		소계	609,250
입소자 부담금수입	본인부담금	132,495,130	저리그	운영충당적립금	_
	비급여	101,978,950	적립금	소계	-
r0018	소계	234,474,080	XUI 7	환경개선준비금	_
요양급여	장기요양급여	843,487,160	준비금	소계	_
수입	소계	843,487,160			

2017년 상반기 후원금 결산내역 (단위:원)

2017. 01. 01. ~ 06. 30.

구분	수입	지출내용		잔액
지정후원금	_	지정후원금	_	
비지정후원금	29,516,850	비지정후원금	21,728,960	7.050.077
전년도이월후원금	11,203,657	전년도이월후원금	11,135,470	7,856,077
합계	40,720,507	합계	32,864,430	



2017년 하반기 주요일정

	40 ₀₀₀₀₀₀₀₀₀₀₀		
		지원 역량강화 및 주요 일정 · 소방(2차) 및 승강기 안전교육	성문가이를
2017	'년 하반기 주요일정		
월	어르신 및 보호자 참여 일정	직원 역량강화 및 주요 일정	
7월		・ 소방(2차) 및 승강기 안전교육	
8월	· 수급자 영양교육(3차) · 수급자 낙상 및 욕창 예방 교육	・ 하반기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인권 교육	
9월	· 추석 행사 '성문 한가위배 놀이한마당' · 구충제 복용	 산업안전보건교육(3차) 노사협의회(3차) 전직원 간담회(3차) 독일 요양시설 연수 참가 	
10월	· 추석 행사 '차례 지내기' · 노인의 날 행사 '천태은빛축제' · 결핵 검사	· 하반기 재난대피훈련 · 전직원 워크샵	
11월	· 수급자 영양교육(4차) · 수급자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 교육(2차)	· 하반기 친절예절교육 · 하반기 장애인식개선 교육	
12월	· 연말행사 '우리는 한 가족' · 하반기 보호자간담회	· 운영규정 및 재정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4차) · 노사협의회(4차) · 전직원 간담회(4차)	

성문 서포터즈

후원안내

성문노인전문요양원은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천태종복지재단에서운영하는 기관으로,

보내주시는 후원금과 후원품은 모두 어르신들을 위해 사용됩니다.

후원계좌 | 예금주 : 성문노인전문요양원

기업은행 128-082332-01-022

기업은행 128-082332-01-143

※ 후원금에 대해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합니다.

자원봉사 안내

성문에서 어르신들의 '행복 동반자'를 찾습니다. 넘치는 열정과 재능, 훈훈한 마음을 가진 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밝은 미소로 어르신들을 위해 봉사해주실 분들은 바로 전화주세요.

활동내용 | 케어봉사(나들이, 말벗, 식사보조, 생활동 청소 등)

전문봉사(의료봉사, 레크리에이션, 심리상담, 미술활동 등)

프로그램 진행보조, 행정업무 지원 등

신청방법 | 전화 (033)745-9179 홈페이지 www.sungmuncare.or.kr



어르신을 공경하겠습니다. 다하는 마음으로 임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십시오.

